

성경번역의 용인성: 세익스피어 시대의 제네바성경을 중심으로*

허 명 수
(한동대)

1. 들어가면서

전 세계 950여 명의 언어 및 성경번역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에서는 훌륭한 성경번역의 객관적인 잣대로 정확성(accuracy), 자연스러움(naturalness), 명료성(clarity)의 세 영역을 중시하고 있다. 체모리언(Diphus C. Chemorion)은 좋은 성경번역이란 이 세 가지 영역이 충족되어 있는 의미기반(meaning-based) 번역이라고 밝혔다(Chemorion, *Translating* 21).¹⁾ 앤더슨(T. David Andersen)은 이 “객관적”인 세 가지 영역

*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에 의한 것임.

1) 체모리언은 SIL에 속한 학자로서, 박사학위 논문인 *Translating Jonah's Narration and Poetry into Sabaot: Towards a Participatory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2008)과, 학술논문인 “Considerations for acceptability in Bible translation”(2009)에서 성경의 용인성에 대한 중요한 자료와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위에 “인지된 신뢰감”(perceived authenticity)을 네 번째 영역으로 추가하여 번역을 수용하는 독자들의 “주관적”인 평가 영역으로 삼았다.²⁾ 이에 대하여 라슨(Iver Larsen)은 “인지된 신뢰감”이란 표현 대신, 당시 구트(Ernst-August Gutt) 등에 의해 전개된 번역학 이론의 흐름을 반영하여, 독자의 “용인성”(acceptability)이란 용어로 대체하며, 이 네 영역이 조화를 이루면 훌륭한 번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40).³⁾ 라슨의 영향을 받은 체모리언은 이 용인성에 관한 논의를 성경번역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더욱 발전시켰다.⁴⁾

체모리언은 네 번째 영역인 용인성이 드러나는 시기와, 번역의 용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용인성이 표면에 드러나는 때는 1) 독자가 번역본을 구매하려는 강한 욕구가 나타날 때와, 2) 독자가 그 구매할 번역본을 실제로 사용할 때와, 3) 그 번역본이 그 독자의 인생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미칠 때라고 주장했다. 이런 용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번역가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1) 목표독자의 참여, 2) 독자/고객 중심의 번역목적, 3) 번역의 고객과 원천텍스트 저자에 대한 충성심, 4) 문화규범과 관습, 5) 언어와 문자사용 능력과 연관된 이슈 등에 관한 고려 등을 꼽았다.

이처럼 성경번역에 있어서 용인성은 좋은 번역을 위한 지침서가 되기도 하고, 또 이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체모리언이 제시한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고,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 시대에 가장 널리 읽힌 제네바성경(Geneva Bible, 1560)이, 비슷한 시기의 대성경(Great

2) Andersen, T. David. 1998. “Perceived authenticity: The fourth criterion of good translation.” *Notes on Translation* 12 (3): 1 - 13. 앤더슨은 이 논문에서 주관적인 수용독자의 평가의 영역인 “authenticity”를 증명할 수 있는 3가지 요소로 “stylistic features”, “certification by a checking procedure,” “the credibility of the translator”를 들었다.

3) 라슨은 당시 독자의 반응을 중시하는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에 관한 저술을 한 구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I agree with Gutt that the expectations of the intended audience are of crucial importance for the success of every Bible translation project.”(40).

4) 체모리언이 학위논문을 쓸 당시에 케냐의 Bible Translation & Literacy(BTL)에 소속되어 사바오트 부족의 성경번역에 관계하고 있었는데, 당시 번역 컨설턴트로 일하던 라슨이 전문 멘토 겸 직속 슈퍼바이저로서 체모리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논문의 acknowledgements에서 밝히고 있다.

Bible 1539), 비숍성경(Bishops' Bible 1568), 두에-라임성경(Douay-Rhemes Bible 1582, 1609) 등과 비교하여, 당시 수용당국(영국의 왕실과 교회)과 수용독자(셰익스피어 시대 영국인)에게 어떻게 용인되었으며 그 뒤에 영어성경의 완결판이라고 평가되는 킹제임스성경(The King James Version, 1611)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독자의 의미와 역할

번역이 객관적으로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앞서 말한 대로, 정확성, 명료성, 자연스러움의 확보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정확성이 원천 텍스트에 대한 “충실성”(faithfulness)을 강조한다면, 명료성은 목표 텍스트에 대한 “가독성”(readability)을 중요시 하고, 자연스러움은 “이국적”이거나 “번역투”가 아닌, 일상적이고 자국적인 표현을 중시한다. 이 세 가지만 충족하여도 훌륭한 번역이라 평가 받을 수 있지만, 후기 구조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목표독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수용독자의 용인성의 개념이 강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심이 되는 대상이 낭만주의 시대에는 주로 원천 텍스트의 저자에 있었다면, 구조주의 혹은 신비평 시대에는 텍스트에 있었고, 후기 구조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독자 중심으로 옮겨간 문학비평 이론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⁵⁾

용인성이 번역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스퍼버(Dan Sperber)와 윌슨(Deirdre Wilson)이 독자의 의미 추구에 대한 기대가 중요시 되는 관련성이론(relevance theory)을 제시하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이 이론을 구트가 성경번역에 적용하면서, 더욱 수용독자의 용인성에 대한 개념이 주목 받고 있다. 구트의 영향을 받은 라슨은 훌륭한 번역을 위해서는 정확성, 명료성, 자연스러움이란 기존의 세 가지 영역에 “용인성”이 조화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의자”의 세 다리와 좌석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43) 라슨은 의자가 사람의 몸무게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것도 중요하지만, 엉덩이를 대고 앉는 좌석 또한 편안하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용독자

5) 번역텍스트의 의미 전달에 관한 내용은 허명수 「세계화와 번역」 137쪽 참조.

의 용인성의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였다.

용인성을 중시하는 번역에 있어서는 독자가 중심되기 때문에 독자를 표현하거나 수식하는 용어도 매우 다양하여졌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인 “target reader/audience”(목표독자)는 광고나 경제 분야에서는 “소구대상”, “광고 타겟”과 같이 번역되어 온 표현인데 번역학에 도입된 것이다. 또한 “intended audience”(의도한 독자)는 “general audience”(일반 독자)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지정된 어느 대상의 독자를 강조할 때 사용되고 있고, “potential audience”(잠재적 독자)는 지정된 독자는 아니지만 번역텍스트를 읽을 잠재성을 갖는 독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독자반응비평에서는 “implied reader”(내포/함축 독자)와 “real reader”(실제독자)가 수용독자의 선험적인 지식정보가 독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독자를 “hearer/listener”(청자), “addressee”(수신인), “the initiator-cum-addressee”(발신인 겸 수신인)이라고까지 다양한 표현들이 번역학에 도입되고 있다.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본 표현으로는 “recipient”(수용자) 혹은 “receptor audience”(수용독자)가 사용되는데, 이는 생리학에서 사용되는 주요개념으로서 수용체나 수용자 등으로 번역되며, 외계로부터 오는 자극 정보나 영향을 받는 구조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화학적이고 직접적인 상호관계가 중시된 이 표현이 용인성을 중요시 하는 번역, 특히 성서번역에는 매우 적절한 표현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자중심의 성경번역의 경향을 반영하여 “receptor audience”(수용독자)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

3. 용인성의 정의

용인성(acceptability)이란 용어는 투리(Gideon Toury)가 1995년에 발간한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에서 적합성(adequacy)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데서 출발하였다. 적합성은 이븐-조하르(Itamar Even-Zohar)가 먼저 사용한 용어로, 기본적 언어체계에 있어서 목표 언어가 원천 텍스트와 괴리 현상을 갖지 않는 번역을 적합한 번역(adequate translation)이라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개념을 투리가 응용한 것이다.⁶⁾ 번역에 있어서 번역가는 먼저

원천어나 원천 문화 규범과 목표어나 목표 문화 규범 중 어느 쪽을 따를지 선택해야 하는데, 투리는 이를 1차적 규범(initial norm)이라고 정의하고, 원천어 규범을 지향할 경우에 번역의 적합성을 결정한다면, 목표 문화의 규범을 지향할 경우엔 용인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56-57). 이런 의견이 팔마 즐라테바(Palma Zlateva) 등 여러 학자들의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오늘날에도 이 용어가 각 번역학자들 나름대로의 개념과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용인성에 대한 개념은 확정되었다기보다는 아직도 변천하고 발전하고 있다. 개념만큼이나 우리나라 말의 표기도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 전현주(2006)와 구하나·이영훈(2010)은 “용인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다현(2008)은 “수용성”으로, 김순미(2010)는 같은 논문에서 “용인성”과 “수용가능성”이란 두 표현을 동시에 사용했고, 이상원(2004)과 송연석(2012)은 “수용가능성”이라고 표기했다.⁷⁾ 상황에 따라 용어 번역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용어의 통일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수용독자(receptor)와의 차별성을 두고, 또 독일의 야우스(Jauss, H. R.)가 주창한 독자 반응이론인 “수용미학”(reception aesthetics), 그리고 문학비평학에서 사용하는 “수용이론”(reception theory)과 구분하기 위해, 본 논문은 “acceptability”를 “용인성”으로 일관성 있게 표기할 것이다.

용인성과 비슷한 의미로 수용(reception)이란 단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닐슨(Kirsten Nielsen)은 *Receptions and Transformations of the Bible*이라는 저서에서, 수용이란 단어를 단순히 한 텍스트를 물리적으로 취하는 것이라면, 변화는 어떤 정신적, 영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10). 성경번역자들은 성경번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수용독자의 영적인 변화에 두고 있으므로 변화(transformation)란 훌륭한 성경번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 변화는 지속되기 때문에 용인성의 한 부분에 포함될 수 있다.

6) 투리는 1975년에 이븐-조하르가 히브리어로 출간한 논문에서 사용된 적합성과 적합한 번역의 개념을 직접 영어로 번역하여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용인성의 개념과 대치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An adequate translation is a translation which realizes in the target language the textual relationships of a source text with no breach of its own [basic] linguistic system” (Even-Zohar 43). (Toury 57, footnote에서 재인용).

7) 원영희(2001)는 비크먼-켈로우의 네 가지 유형의 번역을 설명하면서 “unacceptable”을 “수용불가능”이라고 옮겼다.

투리 이후에 체모리언을 포함하여 여러 학자가 용인성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다르게 사용하여 혼란스럽게 그지없다. 구하나·이영훈은 2010년에 발표한 「기데온 투리의 “용인성” 개념과 그 해석」에서 이론의 혼란성을 언급하고 나름대로 투리 이후의 여러 국내외 학자들의 용인성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서 학스트림, 기데르, 윌리엄스, 로드리게스 등이 모두 번역평가와 연계하여 용인성의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데르가 번역품질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분류하였다면, 학스트림은 번역의 변수로, 로드리게스는 번역평가의 기준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구하나·이영훈은 아주 느슨하게나마 국외의 학자들의 연구방향을 번역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경우(학스트림과 기데르), 번역평가자의 입장의 경우(윌리엄스), 독자의 입장의 경우(로드리게스)로 구분하고 있다(46). 이것은 정의에 입각한 구분이라기보다는 활용과 적용에 관한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자신들의 용인성을 “목표 지향적인 연구(target-oriented research) 들을 대표하는 개념 중 하나”로 간주하여(26)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의를 내려 이런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우려가 되기도 한다.

다른 국내 학자들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용인성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가독성이나 언어적으로 수용되는(이질적이거나 번역투가 아닌)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 경우(이상원, 김순미, 원형희, 이다현)가 제일 많고, 투리의 개념을 확대하여 번역비평가나 평가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우(전현주)와, 충실성과 가독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번역평가에 활용한 경우(고려대 프랑스명작소설평가단)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개념적 차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성경번역가 및 이론가인 체모리언의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체모리언은 번역이 지정한 수용독자에게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지며, 번역의 기능을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가를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the term “acceptability” is used to refer to the degree to which a

8) 구하나·이영훈도 논문의 중반부 이하 후반부까지 주로 용인성 개념을 주로 번역비평가와 평가에 연관되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고려대학교의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연구단 등에 관한 것 내용도 다루고 있다(41-51).

translation is positively received by the intended audience and utilized for the function for which it was produced.

..... “용인성”이라는 용어는 의도한 독자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번역을 받아들이는가와 그 번역이 생성될 때의 기능에 어느 정도 활용되는가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Chemorion, *Translating* 17)

체모리언은 수용독자의 반응을 가장 중요시 하되 지정한 독자의 긍정적인 반응과 활용성에 초점을 둔 반면에, 본 필자는 의도한 독자 외에도 일반적인 수용독자 전체로 독자층을 확대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부정적이거나 무반응의 형태도 독자층의 또 다른 반응의 형태로 간주하며, 수용독자의 주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용인성이란 목표 텍스트(번역물)에 대한 수용독자의 주관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또 본 논문에서 수용독자라 함은, 각 개인은 물론 한 단체나 사회의 총체적인 독자층을 포함하기도 하며, 번역을 주관적으로 검열하고 수용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왕실이나 교회 당국의 구성원까지도 포함한다. 총체적인 용인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용당국의 용인성과 수용독자의 용인성을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인성은 그 번역물이 완전 소멸되기 전까지는 고정된 상태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용인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한이 따른다. 더욱 한 사회나 국가의 총체적인 용인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당시의 자료나 통계에 근거한 평균치나 근사치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즉, 주관적인 반응의 객관적인 측정이 될 것이다. 본 논문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음을 밝힌다.

4. 수용당국의 용인성

4-1. 수용당국의 역할

최근 보수적인 미국의 침례교단에서는 2011년도 여름 교단총회에서 그 해

에 시판된 New International Version(NIV)을 자신의 교단은 물론 다른 기독교 단체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추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의 주요 이유는, 그 성경이 성중립 번역방법(gender-neutral methods of translation)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는 성경번역의 기준을 넘어섰다”(gone beyond acceptable translation standards)는 것이다.⁹⁾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현대에 미국에서 이런 결정이 있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으로 보이지만, 수용당국으로서 한 단체가 자신의 정체성과 노선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은 용인성의 관점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4-2. 수용당국으로서의 가톨릭교회

현대에서도 남침례교단처럼 수용당국으로서의 권위를 발휘하려는 사례가 있지만, 그 영향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아, NIV 판매가 크게 격감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종교적으로 가톨릭-성공회-청교도의 세력이 상황에 따라 격변하던 셰익스피어의 시대에, 번역가는 당국의 용인성과 수용독자의 용인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헨리 8세가 교황과 결별하기 전까지 성경의 수용당국은 가톨릭교회였다. 성경번역은 오로지 두 종류의 번역본만 공식적으로 용인되었었다. 기원전 3세기경에 코이네 헬라어(Koine Greek)로 번역된 70인역(Septuagint)과 서기 405년에 제롬(St. Jerome)이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Vulgate)성경이 그것이다. 특히 불가타는 중세 종교개혁기 까지 1,000년간 거의 독보적으로 모든 가톨릭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영국의 앵글로색슨 시대에 비드(Bede), 캐드먼(Caedmon), 알프레드(Alfred) 등에 의해서 간간히 부분적인 성경번역이 이뤄졌지만,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이 완역된 것은 1392년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에 의해서였다. 1407년 켄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오룬델(Thomas Arundel)은 이를 불법으로 공포하고 발각된 모든 사본은 소각되었으나 250부 정도가 아직 전해진다(Bray 4). 그 이후 윌리엄 틴들(William Tyndale)은 독일어성경의 영향을 받아 1526년 영

9) 성중립번역이란 man, son, father 등의 남성을 가리키는 단어를 person/people, child, parent 등으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것은 “Battle for the Bible Translation.” *Christianity Today*, September 2011, 55쪽을 참조.

어 신약 번역본을 독일에서 발간하였다. 구약성경 번역을 하는 도중 1535년에 스페인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게 되면서 영어성경 번역이 중단되었다.

4-3. 수용당국으로서의 영국왕실

틴들의 미완성 성경 번역은 그가 처형된 후 같은 해 그의 조력자였던 마일스 커버데일(Myles Coverdale)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헨리 8세가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으로 인해 로마교황과 결별하고 성공회를 국교로 선언한 뒤부터, 영국에서의 수용당국은 공식적으로 왕실이 되었다. 커버데일이 1535년에 완역본을 출간함과 동시에 교황청이 아닌 헨리 8세로부터 영어성경을 공인 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빛을 발하여 드디어 최초로 영국국교에서 용인한 대성경이 1539년에 발간되었다. 틴들의 조수였던 존 로저스(John Rogers)는 토머스 매튜(Thomas Matthew)라는 필명으로 틴들과 커버데일의 성경을 참조하여 영어성경을 완성하였다. 새로 부임한 캔터베리 대주교인 토머스 크롬웰(Thomas Cromwell)은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성경을 공식 성경으로 인정하기로 결심하였다. 왕도 이를 허락하여 이 성경을 각 교회에 비치해 놓도록 명하였다. 가로 28cm, 세로 42cm의 큰 규격으로 인해 대성경이란 이름을 얻게 된 이 성경책은 한 쪽에 체인을 달아 고정시켜 단상에 놓고 읽게 하였으니 가정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영어성경이 수용당국인 왕실과 교회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대성경의 2판은 1540년 4월에 발간되었는데 새로 부임한 대주교 토머스 크랜머(Thomas Cranmer)가 서문을 써서 일명 크랜머성경(Cranmer Bible)이라고도 하였다. 국왕과 대주교가 용인한 이 성경은 1553년까지 9판을 발행하여 각 교회를 중심으로 영국 전역에 보급되었다. 여기에는 크랜머가 작성한 기도서와 설교집도 수록되어 있었다. 이것도 성경 못지않게 영국민들의 종교생활의 한 축을 이루었고, 셰익스피어 역시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많이 접촉된 것으로 추정된다(Shaheen 58).

헨리 8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에드워드 6세는 10년도 못되어 1554년에 병사하자 그의 이복누이 메리 1세가 즉위하면서 성경번역의 용인도 변화를 갖게

되었다. 가톨릭을 영국에서 회복하려던 메리는 크랜머 등 수많은 성공회 인물들을 처형하고 친가톨릭 인사들을 중용함과 동시에 대성경의 보급과 기도문과 설교집의 사용을 금했다. 영어성경에 대한 수용당국의 위상과 주체에 관해 매우 혼란한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메리가 5년도 안 된 1558년에 암으로 병사하자 그 뒤를 이어 여왕에 오른 엘리자베스 1세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또 다시 성공회가 국교로서의 위치를 회복하면서 성경번역에도 변화가 왔다.

4-4.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린들 대주교

메리 1세 때 종교적 박해를 피해 많은 청교도들이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을 갔다. 그 중 윌리엄 휘팅햄(William Whittingham)은 칼뱅의 후원 하에 당대 최고의 헬라 및 히브리 학자인 베자(Theodore Beza)의 도움을 받으며 영어 성경번역을 시작하였다. 신약성경이 1557년에 완성되었는데, 이때 대성경을 대신하여 영국의 공인된 성경으로 사용되기를 위해서 그는 서문에, 수용당국의 수장인,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한 헌정사를 넣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왕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하여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뒤 동료들과 한 팀이 되어 휘팅햄은 1560년에 친구약 전체 성경 번역을 완성하였다. 이 제네바 성경은 비록 당국의 용인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가정과 교육기관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서, 수용독자의 용인성을 가장 많이 확보하였다.

성공회의 주교들은 새로운 성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주교 매튜 파커(Matthew Parker)를 중심한 학자들이 모여 1568년에 비숍성경(The Bishops' Bible)을 발간했다. 이는 국교 성직자들을 포함한 성공회 신자들을 위한 공인된 성경이었다. 그러나 헨리 8세 때와는 다르게 성서의 용인에 대해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다. 에드먼드 그린들(Edmund Grindal)이 켄터베리 대주교에 임명된 1575년에서 1584년 사이에 비숍성경은 한 권도 인쇄되지 않았다. 1560년부터 킹제임스성경이 출간된 1611년까지의 영어성경을 보면, 비숍성경이 22회인데 비해 제네바 성경은 120회가 넘게 발간되었다(Berry 14).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제네바 성경이 대주교 그린들의 힘으로만 인쇄를 거듭하며 인기를 얻었다기보다는, 수용독자의 용인성이 확보된 것이 더 큰 이유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경번역이 용인을 담당

하는 당국이 여왕과 캔터베리 대주교로 갈라져 있을 때에는 오히려 실무자인 대주교의 결정권이 더 컸던 유일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4-5. 제임스 왕과 흠정역 성경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 후에, 당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1566-1625)는 아일랜드와 영국을 포함하여 3개의 왕국을 통합하여 제임스 1(James I)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스코틀랜드는 존 녹스(John Knox)가 1559년에 제네바에서 돌아와서 가톨릭 세력을 몰아내고 제네바 성경을 공인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되었었기 때문에 영국 내의 청교도들은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1603년 일단의 청교도들이 왕을 알현하여 국교의 개혁에 관한 청원을 한 것이 그 다음 해 1월 햄튼 코트(Hampton Court) 회의에서 영어성경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엘리자베스 여왕과는 달리, 제임스 1세는 영어성경에 대한 수용당국으로서의 왕실의 권한을 확고하게 하려고 결심했다. 스코틀랜드는 그때까지도 성경 수용당국이 왕이나 교회가 아닌 의회였기 때문에 왕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미 제네바성경의 개정판이 공식적으로 교회에 비치되고 있었다. 그러나 햄튼 코트 회의에서 제임스 1세는 제네바성경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청교도 존 레이놀즈(John Reynolds)는 제네바성경을 공인받기 위해 이전에 사용하던 첫 공인 성경인 대성경에 대하여 정확성과 충실성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수용당국의 주장이 된 제임스 1세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 원천텍스트에 대한 “충실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왕이자 성공회 수장인, 국왕 자신에 대한 “충실성”이었다. 그는 제네바 성경의 노트(방주)에 반왕정 성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장 최악의 성경”(worst of all)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였다(Haugaard 76-77). 제임스는 성경의 공적인 용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논쟁의 여지가 다분히 있는 교리적(특히 칼뱅주의) 주나 해설을 달지 말라는 것이었다. 노튼(David Norton)의 정확한 지적대로, 결국 새로운 성경은 텍스트의 “정확성”과 신학적으로는 제네바성경처럼 논쟁이 생기는 일이 없는 “중립성”과 정치적으로는 수용당국에 대한 용인성이 가장 바람직한 잣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61). 이 결과로 1611년 흠정역(authorized version)이라는 레벨이 불

는 킹제임스성경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대와 사정에 따라 성경번역에 관한 수용당국이 달라지면서 성경 번역이 다양하게 개정되고 변천되어 왔다. 영어성경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 시대에 수용당국에 대해선 용인성이 기복이 많았지만, 수용독자들로부터 꾸준하게 가장 용인성을 확보한 성경은 제네바성경이었다.

5. 용인성의 측정

그렇다면 여러 영어성경 중 제네바성경이 가장 용인성이 높았다는 것을 측정할 방법은 있는가? 체모리언은 독자가 번역본을 구매하려는 강한 욕구가 나타날 때 용인성이 표면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수용독자의 용인성을 측정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가시적인 방법은 용인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판매량을 확인하는 것일 것이다. 요즘같이 정보통신망이 발달된 시대에는 각 성경본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2013년 『크리스천 투데이』지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영어성경책은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NIV)이며, 1978년에 처음 선을 보인 이래로 4억5천만부 이상 팔린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다. 이를 발간하는 미국의 존더반(Zondervan)회사의 대변인인 파워스(Tara Powers)는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로 가독성과 충실성을 꼽았다.

..... the NIV has been so popular among readers due to its readability and because it stays true to the meaning of the original Hebrew, Greek and Aramaic texts.

..... NIV성경이 독자들로부터 이토록 인기를 얻은 이유는 그 가독성 때문이며, 아울러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람어로 된 원전의 의미에 충실했기 때문이다.¹⁰⁾

www.kci.go.kr

10) Nicola Menzie의 2013년 3월 27일자 *Christian Today* 지의 인터넷판 기사 “NIV remains the bestselling Bible translation”

미국의 The Christian Booksellers Association가 통계를 낸 2012년의 베스트셀러 성경 상위 3개의 판매액 순위는 1) New International Version, 2) King James Version, 3) New Living Translation이다.¹¹⁾

셰익스피어 시대에 판매량을 근거로 할 경우 어떤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을까? 1560년부터 1611년에 킹제임스성경이 출간되기 전까지 발간된 영어 성경 중에서 횡수를 기준으로, 많은 것부터 순서로 보면, 첫째가 제네바성경 120회(킹제임스성경이 나온 뒤에도 무려 60회 이상 인쇄)이었고, 둘째가 비숍성경 22회, 셋째가 대성경 7회, 그리고 틴들의 신약성경이 5회였다(Berry 14).

브레이크(Donale L. Brake)는 제네바성경이 최소 140회, 최대 200회까지 인쇄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킹제임스성경이 공포된 이후에도 60회 이상 해외에서 발행되었고, 네델란드에서 인쇄되어 영국으로 몰래 들여온 제네바성경만 해도 15만권이 넘었다고 한다(Brake 154). 1557년 신약성경이 완성된 후 1560년에 친구약 완성판이 완성될 때는 휘팅행과 더불어 번역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은 앤소니 길비(Anthony Gilby), 윌리엄 콜(William Cole), 크리스토퍼 굿맨(Christopher Goodman), 토머스 샘슨(Thomas Sampson) 등이었다. 이외에도 칼뱅과 베자, 존 녹스까지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성경번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번역팀이라고 할 만하다(Brake 148-49). 이런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도 당시 영국인들에게는 신뢰감이 생겼을 것이고 이런 신뢰감이 용인성 확보에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그 뒤를 이어 비숍성경과 대성경이 많이 출간되었고 틴들의 성경이 가장 적게 발간되었다. 이러한 판매량의 차이는 출판된 시기와 수용당국의 용인성과 수용독자의 용인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발행된 시기가 오래 될수록 새로운 정책과 상황에 따라 판매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에서 발행한 두에-라임성경이 통계 속에 빠진 이유는 실지로 영국에서 발행되지도 않았고 판매도 극히 미미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단순히 판매부수로만 용인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나이다와 타버는 단순한 판매부수보다도 수용독자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www.kci.go.kr

11) Thom S. Rainer의 2013년 3월 20일자 *Christian Post* 지의 인터넷판 기사. “Top 10 Bible Translations in the United States.”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성경을 구입한 독자가 자신의 지인과 얼마나 많이 나누어 보고 있는지와, 교회나 예배에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얼마나 오래 그 성경을 읽고 있는가와, 그 성경을 얼마나 진지하고 심도 있게 읽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Nida & Taber, *TPT* 173). 실지로 2012년 10월에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가 낸 통계에 의하면, 교인 중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불과 20%에 불과하다고 한다.¹²⁾

이는 체모리언이 제안한 용인성을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다수의 일반 기독교 대중을 대상으로 할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거나 서류 혹은 전자 및 인터넷을 통한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직접적인 통계가 어려울 경우 다음 세 번째 방법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세 번째 용인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체모리언의 의견에 따르면, 그 번역본이 그 독자의 인생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사실상 두 번째 보다 더 어렵고 오랜 시간에 걸쳐 조사를 해야 하는 영역이다. 이것 역시 소수 부족이나 적은 인원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그래도 성경에 의해 영적인 변화가 생기면 그의 신앙생활은 물론 그의 언어와 정서 등 전반적인 생활패턴에 큰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용인성의 측정이 될 것이다.

셰익스피어 시대에 어떤 성경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었는가를 확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간접적으로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통계가 있다. 1611년에 발간된 킹제임스성경은 대부분 이전에 발간된 번역본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워스(Charles C. Butterworth)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킹제임스성경 번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성경을 영향력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네바성경이 신약성경 단독본을 포함하여 19%
- 2) 틴들성경이 매튜성경을 포함하여 18%
- 3) 커버테일 성경이 대성경을 포함하여 13%
- 4) 비숍성경이 개정판까지 포함하여 4%

12) 니콜라스 멘지의 2013년 9월 19일자 *Christian Post Reporter*지의 인터넷판 기사 “Top Bible Translations Remain NIV, KJV and NKJV.”

- 5) 위클리프 성경이 설교를 포함하여 4%
- 6) 기타 성경본이 3% (두에-라임 포함)의 영향력을 미쳤고, 그 외 나머지 39% 정도가 킹제임스 성경의 새로운 자료라고 한다. (Berry 18 재인용).¹³⁾

6. 용인성의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용인성의 확보는 수용독자를 확보하는 차원에도 중요하지만, 번역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지침서 역할을 한다. 일례로 체모리언이 제시한 용인성 확보를 위한 5가지 고려사항은 성경번역가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이를 조금 변형하여 수치화하면 번역평가의 잣대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 목표독자의 참여, 2) 독자/고객 중심의 번역목적, 3) 번역의 고객과 원천 텍스트 저자에 대한 충성심, 4) 문화규범과 관습, 5) 언어와 문자해독과 연관된 이슈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고려사항은 원칙적으로 현대 성경번역가들을 위한 것인데, 과연 셰익스피어 시대의 성경번역가들은, 특히 제네바성경의 번역가들은,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6-1. 목표독자의 참여와 독자

후기 구조주의 이전 시대에 대부분 수용독자는 수동적 입장을 취하며 번역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고 번역결과물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에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번역에서, 수용독자는 매우 적극적으로 번역에 관한 주요 결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체모리언은 이런 수용독자를 “발신인 겸 수

13) 피(Fee)와 스트라우스(Strauss)는 틴들성경이 킹제임스성경에 90% 이상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136). 브레이(Gerald Bray) 역시 같은 주장을 하면서, 17세기 이전까지는 루터성경이 독일어 성경에서 갖는 의미를 틴들성경이 영어성경에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8). 라이켄(Leland Ryken)은 틴들성경이 킹제임스성경에 80%의 영향력을 끼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48). 틴들이 구약성경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처형되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정확한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 단지 여기서는 틴들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도록 하겠다.

신인”(the initiator-cum-addressee)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발신인(initiator)은 노드(C. Nord)가 내린 정의를 따라 고객(client)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¹⁴⁾ 그러나, 성경번역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런 노력은 아주 최근의 것이었고, 셰익스피어 시대 역시 목표독자가 번역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이 현대와 셰익스피어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제외하고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네바성경 번역팀이 큰 관심을 두고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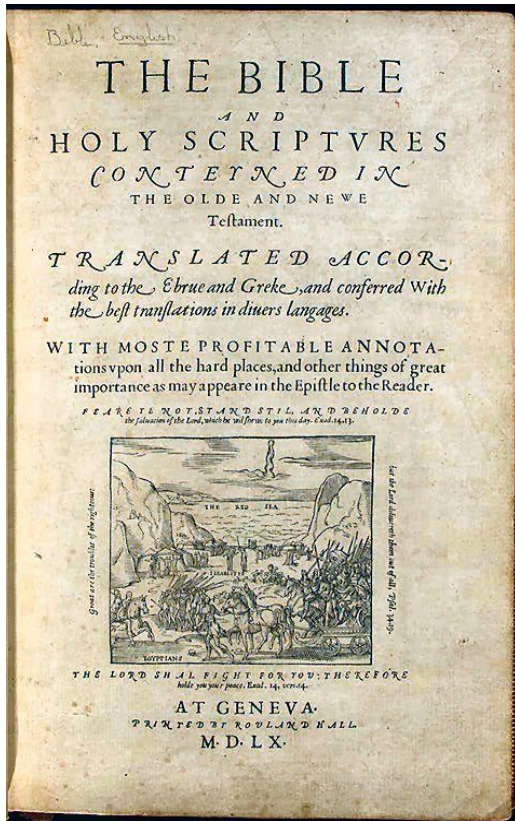
6-2. 수용독자 중심의 번역목적

용인성 확보를 위한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 체모리언은 기능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스킵스의 이론을 성경번역에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노드의 기능주의적 번역은 의도한 수용독자의 기대, 필요, 사전 지식, 상황조건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8), 수용독자 중심의 번역 목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번역이 실지로 시작되기 이전에 적절한 스킵스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모리언은 강조하고 있지만(Chemorion, “Considerations” 345), 사실 독자반응을 중시하는 현대 성경번역의 흐름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기존 번역목적이 수정되어 갈 수도 있다. 특히 독자의 기대나 필요가 바뀐다면, 언어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절이 반영될 수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제네바성경 초판(1560)의 번역팀은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더 수용독자 중심의 번역을 시도하였다. 책의 포맷에서부터 독자를 위한 배려가 보인다. 사이즈도 대성경처럼 비치용이 아닌, 휴대가 가능하게 작은 쿼토(quarto) 사이즈(24.13cmx16.51cm)로 하였고, 시각적으로 잘 읽을 수 있도록 2단으로 나눠서 배열했고, 로마활자(Roman type)로 인쇄하였고, 권(Book), 장(chapter), 절(verse)을 구분하였고, 문단(paragraph) 구분 표시(¶)를 첨가하였다. 또 독자가 성경의

14) 노드(C. Nord)는 1997년에 발간한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에서 “initiator”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the person or group of people or institution that starts off the translation process and determines its course by defining the purpose for which the target text is needed” (Nord 139) (Chemorion, Considerations 344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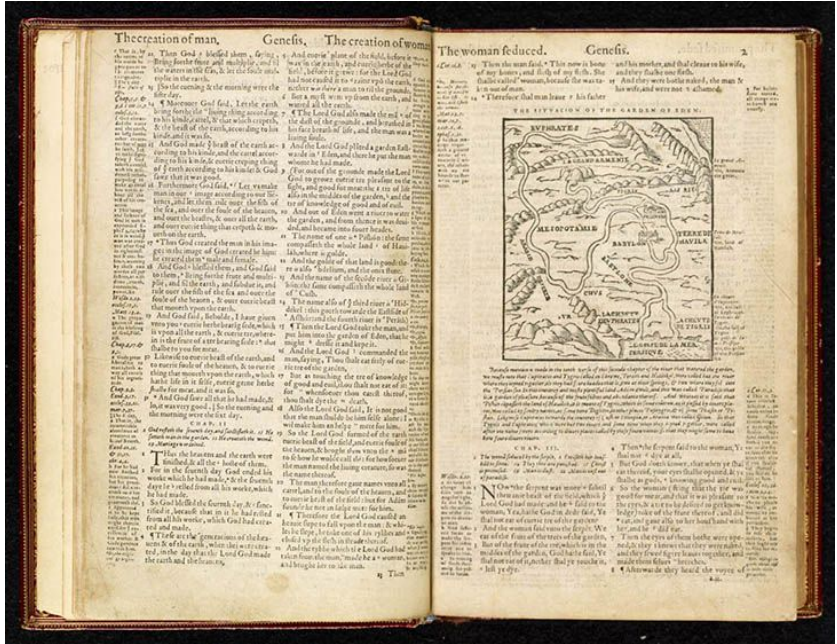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5장의 지도, 26개의 목판 삽화, 부록으로 고유명사 색인과 설명, 성경 내의 중요한 일들, 성경 내의 시간과 연대기, 사도바울의 사역과 서간문 설명 등을 적절한 곳에 삽입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제네바성경 내지

또한 각 권마다 제목과 칼뱅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입각한 신학적 논점 (arguments)을 넣고, 장마다 소제목과 간략한 설명을 넣었다. 여기에는 반가톨릭 정서와 때론 반정부적 경향의 내용도 넣어서 당시의 민심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 페이지 상단에는 몇 단어로 구성된 설명문을 넣었고, 양 쪽 공백에다는 방주(marginal notes)와 참조 인용(reference)과 상호참조(cross

references) 등을 넣어 독자들의 지적·영적인 호기심의 갈증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제네바성경 창세기 1장 후반부터 3장까지

특히 방주에는 프로테스탄트의 교리에 의한 해석과 코멘트가 많았는데 당대 최고의 신학자와 종교개혁가인 칼뱅, 녹스, 베자, 키버데일, 워딩햄, 등이 대거 참여했다. 햄린(Hamlin)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최초의 “스터디성경”(Study Bible)의 형식으로 집에서든 혼자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서 “사용자에게 가장 친근한 성경”(the most user-friendly edition)으로서 수용독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였다(11). 그 뒤에 발행된 킹제임스성경을 비롯하여 오늘날에 발간되는 대부분의 성경도 제네바성경의 포맷을 따라, 성경본문의 내용뿐 아니라 수용독자들을 위한 텍스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다양한 정보를 삽입하고 있다.

6-3. 번역의 고객과 원천텍스트 저자에 대한 충성심

체모리언은 용인성을 위해 노드의 “기능+충성심”(function+loyalty)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번역가가 원천텍스트를 임의로 처리하여 왜곡되지 않게 번역하여야 하며, 목표텍스트의 요구사항과 원천텍스트 저자의 의도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하는 윤리적 원칙을 의미한다(Chemorion, “Considerations” 345). 노드의 이 개념은 원천텍스트의 충실성과 가독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이다와 타버는 충실성이란, 주로 원천텍스트에 충실하여 원천텍스트의 독자와 비슷한 감정과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이는 형식적 등가보다는 역동적 등가의 결과라고 주장한다.¹⁵⁾ 그들은 텍스트 내에서의 충실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드와 체모리언은 텍스트 외의 윤리적인 문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셰익스피어 시대에도 충실성과 가독성에 대한 고민은 많았다. 현대 번역학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번역가들도 원천텍스트에 대한 충실성과 수용독자의 가독성 간의, 혹은 이국화와 자국화 간의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 제네바성경 번역가들은, 그림 1의 내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천텍스트의 충실성을 위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로 된 기존 성경번역본들을 참조하였음을 강조했다. 기존의 영어성경 중에서는 틴들의 번역본을 리차드 저그(Richard Jugge)가 1552년에 개정하여 발간한 번역본을 주로 참조하였다. 헬라어 성경본은 1551년의 스테파누스(Stephanus) 판을, 라틴어 성경은 베자의 개정판(1555)의 것을 주로 참조하였다. 여기에서 괄목할만한 사항은, 이렇게 충실성을 위해 원천텍스트를 참조할 때 70인역과 불가타 원본을 참조하지 않고, 그 후 개정·증보되어 발전된 번역본들을 참조하였다는 점이다.

15) 나이다와 타버의 정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faithful (translation): which evokes in a receptor essentially the same response as that displayed by the receptors of the original message. The receptor understands the same meaning in it, reacts to it emotionally in the same way, and comes to analogous decisions and actions as the original receptors; faithfulness is primarily a quality of the MESSAGE rather than of the FORM, i.e. it results from DYNAMIC EQUIVALENCE rather than from FORMAL CORRESPONDENCE. (Nida & Taber. 2003.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201)

이것은 원천텍스트의 충실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당시의 시사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이 반영되어서 가독성과 용인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욱이 칼뱅과 베자의 개혁주의 노선의 교리와 사상이 방주를 통해 생생하게 묘사되면서 당시 영국인들에게는 원천텍스트와 동시에 독자에 대한 충성심이 모두 반영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교리적으로 칼뱅주의를 포함해 개혁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오면서 영국왕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문제를 번역팀이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것이 햄튼 코트 회의에서 역풍을 맞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킹제임스성경의 번역 가이드라인에서 논쟁이 될 만한 방주가 아예 삭제되었다. 각주나 방주나 권말의 주는 목표텍스트의 시사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용인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시대가 지나가거나 상황이 바뀌면 오히려 수용당국이나 수용독자들에게 용인성을 잃게 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다.

6-4. 문화규범과 관습

문화의 이해가 번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체모리언도 문화적 중개자(cultural mediators)로서의 번역가의 역할에 주목하여 성경번역가는 그 문화가 갖는 고유의 습관, 규범, 관습 등을 이해하고 이를 목표텍스트에 반영하여야 함을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수용독자들의 불만이 초래되었던 예를 들었다. 처음 사보아트어로 “예언자”(prophet)라는 단어를 옮길 때, “하나님의 대변인”(spokesman of God)이라는 의미를 가진 서술적인 표현인 “ng’alooltooyiintëetaab Yëyiin”을 택했지만, 원주민들은 이에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 그들이 원래부터 사용하던 예언자(prophet) 혹은 선각자(seer)의 뜻을 가진 “wöörkooyoontëët”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예수를 지칭하는 “인자”(son of man)와 “제사장”(priest)을 가리키는 단어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예를 들었다. 이렇게 수용독자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문화규범에 맞는 번역을 시도할 것을 권하고, 부득이 문화규범과 관습에 부합하지 않은 번역을 시도해야만 할 경우에는 수용독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Chemorion, “Considerations” 345-346).

셰익스피어 시대에도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용인성 확보에 실패한 경우는 많았다. 종교개혁 이후 성경번역이 못물 터지듯 등장한 이유는 가톨릭이 당시 변화되고 있는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행하였던데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도입과, 가톨릭 성직자들의 영적인 타락과 성경의 임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당시의 지성인들의 성경의 필요성을 인식한 점도 있지만, 가톨릭에서 1,000여 년간 권위적으로 사용하던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가 르네상스 시대에 넘어가면서 급변하던 문화와 과학과 언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던 것이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점차 자신의 문화와 언어와 관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국인들은 가톨릭 중심의 확일성에 대한 반발과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심이 자연히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수용자들의 용인성의 변화를 가톨릭은 인식하지 못하고 비성경적인 권위로 그런 변화를 압도하는 잘못된 정책을 견지했었다. 반면에 제네바성경은 당시 종교개혁의 분위기와 반가톨릭 정서, 영국인의 언어와 문화와 국력의 자부심에 대하여 성경 곳곳에 서문과 해석과 방주 등을 통해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한 것이 높은 용인성을 얻게 된 이유라고 생각된다.

6-5. 언어와 문자 해독과 연관된 고려사항

용인성을 위해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언어에 대한 이해이다. 나이지리아와 같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자기 나라나 부족의 언어에 대해 존경심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경우 목표언어로의 번역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스몰리에 의하면 어떤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지방어(vernacular)가 성경을 번역할 만큼 거룩하지(sacred)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번역가는 목표독자들에게 그들의 언어가 성경을 번역하기에 충분하리만치 좋은 언어라는 점을 알리고 교육을 할 필요까지 있는 것이다(87).

중세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도 문맹자들은 많았고, 설령 글을 읽고 쓴다고 해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 해독율은 지극히 낮았다. 가톨릭에서 오랫동안 불가타 성경을 사용하는 동안 라틴어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언어로 인식되었고, 기타 지방언어를 “vernacular”라

고 부르면서 천대하는 경향이 있었다.¹⁶⁾ 가톨릭은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다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종교적 권위로 막았다. 초기에는 성경의 오독의 위험과 이단에 대한 경계심에서 교황과 성직자들이 성경해석을 독점했지만, 중세를 지나면서 오히려 성경을 오염시킨 장본인이 바로 그들이 되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시기 보다보다도 150년이나 앞서서, 에라스무스와 위클리프 같은 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성경번역을 시도했고, 이에 대한 영향력은 컸다. 위클리프성경 이후의 작가들은 성경적이거나 교회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작품 활동을 했다.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 윌리엄 랑랜드(William Langland), 존 가워(John Gower), 토머스 말로리(Thomas Malory) 등이 15세기에 기독교와 연관된 주제로 중세영문학을 발전시켰다. 이어서 도덕극, 기적극 등 기독교 색채를 띤 영어연극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문맹률도 점차 낮아졌고 영국의 언어는 물론 문화와 문학도 발전했다.

르네상스를 맞아 새롭게 변화된 근대영어에 맞는 영어성경의 번역이 자연스럽게 요구되었다. 이를 인식한 틴들은 마르틴 루터의 영향과 도움을 받아 1526년 영어성경 신약본을 독일에서 발간하였다. 비록 구약성경 번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순교 당했지만, 그의 신약성경은 최초로 영어로 인쇄된 성경 번역이었고, 따라서 대규모로 수용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성경을 완역한 커버데일은 이제 영국의 교회와 왕실의 인정을 받는 영어성경의 탄생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 제네바성경은 위클리프, 틴들, 커버데일이 이뤄놓은 성경번역의 토대에 더욱 영어를 현대 감각에 맞게 표현을 고치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번역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셰익스피어를 위시하여 당대 작가들의 귀중한 아이디어, 이미지, 표현, 비유, 주제 등을 성경에서 가져와서 문학작품에 활용하게 되면서 영어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처럼 중세기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경번역가들도 라틴어에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간주되던 자국어어를 사용하여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영어가 발전하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수용독자들의 문맹률을 낮추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수용독자들의 용인성 역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16) “vernacular”은 “가정의” “원주민의”라는 의미를 갖는 라틴어 “vernaculus”에서 왔는데 그 어원은 “집안에서 태어난 노예”라는 뜻을 갖고 있는 “verna”이다(Online Etymology Dictionary © 2010 Douglas Harper Cite).

8. 나가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훌륭한 성경번역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확성, 자연스러움, 명료성의 영역과 더불어 주관적인 독자의 반응인 용인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체모리언이 실시 성경번역의 경험을 근거로 제안하였듯이, 용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용독자 중심의 번역과, 저자와 독자에 대한 균형 잡힌 충성심, 문화적 관습적인 규범, 언어와 문자해독 능력에 관한 내용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성경번역가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수도 있지만, 번역물을 평가하고 비평하는 잣대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 이를 기준으로 셰익스피어 시대에 그가 읽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성경, 비숍성경, 제네바성경, 두에-라임성경 등을 분석할 때 제네바성경이 셰익스피어 시대에 대부분의 영국인들에게 가장 광범위한 용인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네바성경의 용인성 분석 과정에서, 당시 성경 번역팀이 용인성 확보를 위해 고려한 사항들에 대한 강점과 약점이 드러났다. 그들은 현대의 기준으로 봐도 용인성 확보를 위해 괄목할만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원천텍스트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성경은 물론 이전의 틴들성경을 포함하여 영어성경들을 참조하고 게다가 당대 최고의 신학자인 칼뱅과 베자 등의 도움을 얻은 것이 훌륭한 번역이 되는데 결정적인 뒷받침이 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 영국의 반가톨릭, 개혁주의 정서와 문화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무적함대를 격파하면서 국가의 위상과 자부심이 올라가면서 자국어인 영어를 통한 성서번역에 대한 자부심과 필요성도 잘 반영되었다. 여기에 수용독자를 위해 시각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전체를 권, 장, 절로 나누고 그림, 지도를 삽입하고, 방주를 통한 시사적인 정보,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조 등이 풍부하였고, 이 외에도 성경을 혼자서도 연구할 수 있는 여러 참고자료를 부록으로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지적·영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준 것은 용인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제네바성경은 당대 최고의 성경이란 이름에 손색이 없었다.

그리고 여러 역사적 통계와 자료를 통해서 제네바성경의 용인성을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영어성경에 비해 뛰어났다. 발행횟수, 발행 기간, 독자들의 호응도, 수용독자들에 대한 영향력 등에 있어서 킹제임스성경 이

전에 제네바성경과 맞추는 없었다. 제네바성경 번역팀의 용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가용독자들의 용인성은 가장 높으면서도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성경으로 한 번도 용인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대성경, 비숍성경, 킹제임스 성경에게 빼앗긴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제네바성경의 장점이면서 결점이 되어버린 확장된 방주 안에 담긴 지나친 칼뱅주의, 반정부적인 정서, 반가톨릭적인 설명 등이다. 이로 인해서 제임스1세로부터 “최악의 성경”이라고 까지 혹평을 듣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용독자들에게는 최고의 용인성을 받고서도, 수용당국에는 최악의 평가를 받은 셈이었다. 제네바성경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번역에 착수한 킹제임스성경 번역팀 47명(임명된 54명 중 실지 참여한 인원)은 불후의 명품이 된 영어성경을 남길 수가 있었다. 비록 최고 영어성경의 위상을 17세기 이후에 킹제임스성경에 넘겨주었지만, 그 성경이 탄생하는데 제네바성경이 일부는 좋은 영향력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네바성경은 영국민의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예술적인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제네바성경이 셰익스피어의 문학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용인성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제네바성경이 킹제임스성경 번역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에서부터 제임스 1세 시대에 걸쳐 성경번역과 문학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하나·이영훈 (2010) 「기대온 투리의 “용인성” 개념과 그 해석」, 『번역학연구』 11(4): 25-56.
- 김순미 (2010) 「문학번역에서의 격식성의 변화」, 『번역학연구』 11(1): 127-159.
- 박윤철 (2009) 「불경번역 방법에 관한 제언」, 『번역학연구』 10(3): 121-139.
- 송연석 (2012) 「뉴스편역의 번역규범 - 텍스트 규범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59-82.

- 원영희 (2001) 『한역성경의 표현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영문학전공 박사 논문.
- 이다현 (2008) 「수용성 증진 방안연구: 친절한 금자씨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1): 193-213.
- 이상원 (2004) 「출판 번역 비평과 번역 규범」,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6(2): 39-57.
- 전현주 (2006)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번역 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 179-205.
- 천종수, 편찬 (2011) 『회복성경: 개역개정, 해설새찬송가』. 서울: 성서원.
- 허명수 (2003) 「세계화와 번역」. 『번역학연구』 4(2): 131-153.
- Andersen, T. D. (1998) "Perceived authenticity: The fourth criterion of good translation," *Notes on Translation* 12(3): 1-13.
- Beekman, John & John Callow (1974) *Translating the Word of God*, Grand Rapids: Zondervan.
- Berry, Lloyd E. (1969) *The Geneva Bible: A Facimile of the 1560 Edition*, Madison & Lond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Blake, Donald L. (2011) *A Visual History of the English Bible: The Tumultuous Tale of the World's Bestselling Book*. Grand Rapids: Baker Books.
- Bray, Gerald (2010) *Translating the Bible: From William Tyndale to King James*, London: The Latimer Trust.
- Butterworth, Charles C. (1941) *The Literary Lineage of the King James Bible, 1340-1611*, Philadelphia.
- Chemorion, D. C. (2009) "Considerations for acceptability in Bible translation". *Verbum et Ecclesia* 30(2): 343-47.
- _____ (2008) "Translating Jonah's narration and poetry into Sabaot: Towards a participatory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PABT)", Doctor of Theology dissertation, Stellenbosch University.
- Christianity Today* (2011) "Battle for the Bible Translation" *Christianity Today*, September 2011. 55
- Even-Zohar, Itamar (1975). "Decisions in Translating Poetry". *Ha-Sifrut/Literature*

21. 32-45.

- Fee, Gordon D. & Mark L. Strauss (2007) *How to Choose a Translation for All Its Worth*. Grand Rapids: Zondervan.
- Flood, John L. (2001) "Martin Luther's Bible Translation in its German and European Context." *The Bible in the Renaissance*. Ed. Richard Griffiths. Aldershot: Ashgate.
- Gutt, Ernst-August (2000)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St. Jerome Publishing.
- Hamlin, Hannibal (2013) *Bible in Shakespea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ugaard, William P. (1984) "The Bible in the Anglican Reformation." *Anglicanism and the Bible*. Ed. Frederick Houk Borsch, Wilton: Morehouse Barlow: 11-80.
- Larsen, Iver (2001) "The fourth criteria of translation," *Notes on Translation* 15(1), 40-53.
- Larson, Mildred L. (1998) *Meaning-based translation: a guide to cross-language equivalence*,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Menzie, Nicola (March 27, 2013) "NIV remains the bestselling Bible translation" *Christian Today's Internet edition*. <http://au.christiantoday.com/article/niv-remains-the-bestselling-bible-translation/15171.htm>
- _____ (September 19, 2013) "Top Bible Translations Remain NIV, KJV and NKJV." *Christian Post*. Internet edition. <http://www.christianpost.com/news/top-bibletranslations-remain-niv-kjv-and-nkjv-104870/>
- Nida, Eugene A. (1988) "Intelligibility and acceptability in Bible translating." *The Bible Translator* 39(3): 301-308.
- Nida, Eugene A. & Charles R. Taber (2003)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 Boston.
- Nielsen, Kirsten (2009) *Receptions and Transformations of the Bible*.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Nord, Christian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Norton, David (2000) *A History of the English Bible as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P.

Rainer, Thom S. (March 20, 2013) “Top 10 Bible Translations in the United States”, *Christian Post*. Internet edition.
<http://www.christianpost.com/news/top-10-bible-translations-in-the-united-states-92219/>

Ryken, Leland (2002) *The Word of God in English: Criteria for Excellence in Bible Translation*, Wheaton: Crossway Books.

Smalley, W. A. (1991) *Translation as mission: Bible translation in the modern missionary movement*, Mercer University Press.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Zinman, Ira B. (2009) *Shakespeare’s Sonnets and the Bible: A Spritual Interpretation with Christian Sources*, Bloomington: World Wisdom.

[Abstract]

Acceptability of the Bible Translation: Focusing on the Geneva Bible in Shakespeare's Period

Hur, Myung Soo
(Handong Global University)

Iver Larsen and Diphus C. Chemorion argue that acceptability is one criterion of a good Bible translation. Acceptability is the receptor audience's subjective response to a translation. This paper compares the acceptability of the Geneva Bible (1560) to those of other translations in circulation during Shakespeare's lifetime (1564-1616). The comparison demonstrates that among the available translations, the Geneva Bible had the highest level of acceptability. Acceptability was high because the Geneva Bible translators provided readers with copious and relevant information, such as exegetic commentary and notes concerning doctrinal differences between Protestants and Roman Catholics. Faithfulness to available source texts, compatibility with respected protestant theologians such as John Calvin and Theodore Beza, and acceptable responses to the prevailing Anglican conventions and anti-Catholic cultural norms of its time further enhanced the Geneva Bible's acceptability. The Geneva Bible's preference for English vernacular over Latin also enhanced its acceptability.

Evidence for the acceptability of the Geneva Bible has been found in the fact that its original and revised editions were published and circulated more than any other English version of the Bible prior to the King James Version (1611). However, despite its high popularity and acceptability in Shakespeare's period, the Geneva Bible failed to become the Authorized Version, mainly owing to the marginal notes' controversial anti-Catholic sentiments, strong

Calvinistic doctrines, and some disparaging comments regarding royal authority. Both Queen Elizabeth and King James rejected the Geneva Bible as the Authorized Version for Anglican worship, and instead ordered a new version which became the King James Version of 1611. The Geneva Bible's failure to be used as the Authorized version, however, does not diminish the translation's acceptability among its intended audience. Rather, this failure is merely an indication that royal and ecclesiastical authorities adhered to different evaluative criteria than the English public at large.

▶ Key Words: Bible translation, Geneva Bible, acceptability, Shakespeare, evaluation of a translation

허명수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hms@handong.edu

관심분야: 성서번역, 제네바성경, 용인성, 셰익스피어, 문학번역, 번역 평가

논문투고일: 2014년 1월 20일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4년 3월 12일